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일 관련 문법 성취 기준 내용 분석 및 교과서 기술 방향**

**강보선** 대구대학교 조교수

† 이 논문은 제61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6.4.16.)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5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 I. 머리말
- II.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III. 현재의 남북 언어 차이
- IV. 통일 과정에서 남북 언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
- V.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 VI. 맺음말

## I. 머리말

남북 간의 온전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언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의 국어 의식 조사의 일환으로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북한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바 있는데, 북한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 비율<sup>1</sup>이 2005년에는 51.6%, 2010년에는 54.6%, 2015년에는 64.1%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에서 국민들이 북한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국민 전체가 북한말을 알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므로’(42.9%), ‘㉡ 의사소통에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으므로’(30.5%), ‘㉢ 어차피 통일이 되면 남한어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므로’(26.4%)가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각각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우선 서로의 말을 잘 이해하는 남북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남북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빨리 극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뒤에서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남북 언어 차이는 남북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많은 불편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은 잘못된 인식이다. 끝으로 통일

1 “귀하께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국민들에게 북한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다(김창영 외, 2015: 191).

후 일방적으로 남한어 사용만 강요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의 심리적 반발을 초래하게 되어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㉔은 바람직하지 않다.<sup>2</sup> 따라서 북한어 교육과 관련된 오해를 바로잡고 통일 과정에서 국어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국어교육에서 남북 언어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에서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다’는 성취기준(이하 ‘2015 통일 관련 성취기준’)을 설정한 것은 국어교육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2015 통일 관련 성취기준은 남북 언어 차이를 다룬 기존의 성취기준을 계승한 것이긴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통일 시대’라는 표현을 성취기준상에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이 성취기준이 2015 범교과 학습 주제<sup>3</sup> 중 하나인 ‘통일 교육’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sup>4</sup> 둘째, 기존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남북 언어 차이’를 중심으로 성취기준이 기술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통일 시대의 국어’가 부각되면서 성취기준 내용의 범위가 확대되었다.<sup>5</sup> 셋째, 성취기준의 진술이 기존의 ‘이해한다, 비교한다, 탐구한다’에서 ‘태도를 지닌다’로 바뀜으로써 학습자의 태도 형성을 강조하였다.

2015 통일 관련 성취기준이 그 선정 의도에 맞게 교수·학습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의 취지 및 변화를 잘 반영하여 국어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5 통일 관련 성취기준의 내용을 분석하

2 독일은 서독어 중심으로 언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동독인의 저항과 동서독 사람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김영길 외, 2001; 최경은, 2015, Stevenson, 2002 참고).

3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로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제시하였다.

4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통일 시대’라는 말이 사용되나 성취기준이 아니라 성취기준 해설에서 ‘통일 시대’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5 통일 관련 성취기준과 차이가 있다.

5 7차 9학년 국어지식 영역 성취기준은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안다.”, 2007 개정 8학년 문법 영역 성취기준은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 2011 개정 ‘독서와 문법II’의 성취기준은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동질성 회복 방안을 탐구한다.”이다.

고 각 내용에 대한 교과서 기술 방향을 모색해 봄으로써 통일 대비 국어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5 통일 관련 성취기준의 내용은 성취기준 해설<sup>6</sup>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크게 ①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② 현재의 남북 언어 차이, ③ 통일 과정에서 남북 언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 ④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각 내용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기술하면 좋을지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 Ⅱ.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국어과 교육과정, 좁게는 문법 영역에서 잘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나 학습자가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강조한 2015 통일 관련 성취기준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성취기준 해설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밝혀 학습 내용으로 삼은 것은 의미가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법, 사회 체계 등과 같은 체계 통합뿐만 아니라 가치, 규범, 이데올로기, 의식, 문화 등의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이해영, 2000). 우리가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국어가 남북의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북은 분단 이후 70년이 지나는 동안 인적 교류가 거의 단절된 채 지내 왔고 남북이 독자적으로 국어 정책을 펼쳐 왔

---

6 성취기준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이 성취기준은 남북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살펴 보고,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통일 시대의 국어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현재의 남북 언어는 무엇이 다른지, 통일 과정에서 남북 언어의 차이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예상되는지 등을 비롯하여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기 때문에 남북 언어 또한 크고 작은 이질화를 겪게 되었다. 남북 언어의 이질화는 남북의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남북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국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통일 이후의 국어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통일 시대의 국어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남북의 언어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염려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의 언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분단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문제와 같은 것도 통일 시대의 국어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기술 시, ‘통일 시대의 국어’에 통일 이후의 국어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남북의 언어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국어 문제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 Ⅲ. 현재의 남북 언어 차이

교과서에서 현재의 남북 언어 차이를 기술할 경우, 남북 언어의 이질성만을 부각해서는 안 된다.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남북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함께 살펴볼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남북 언어의 동질성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질성을 기술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남북 언어 차이를 기술할 때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어떤 방향에서 그 차이를 기술해야 할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 1. 남북 언어 차이의 내용

남북 언어 간에 발음 및 억양, 어휘, 문장, 화행, 어문규범, 언어예절 등에서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들(고영근, 1999; 김민수, 2002; 박갑수, 2002; 조오현 외, 2002; 문금현 외, 2006; 이대성 외, 2013; 권재일, 2014 등)을 통해 많이 밝혀졌다. 따

라서 교과서에서는 이들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서 다룬 남북 언어의 차이가 ‘현재’의 언어 차이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과거의 남북 언어를 대상으로 파악한 차이가 아니라 현재의 남북 언어를 대상으로 파악한 차이를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는 당연한 진술로 보이나 기존의 국어 교과서에서 남북 언어 차이를 비교할 때 현재의 남한어와 과거의 북한어를 대비하여 남북 언어 간에 차이가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sup>7</sup> 이는 현재의 북한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남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 대응하는 북한 단어가 지금도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북한의 국어사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얼음보숭이’이다. 남한의 ‘아이스크림’에 해당하는 북한 단어를 ‘얼음보숭이’라고 교과서에서 잘못 기술한 것은 ‘얼음보숭이’가 북한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에스키모’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상존하지만 교과서에서는 북한어 전문가 및 북한이탈주민의 검증, 북한 말뭉치 자료, 북한의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실제로 현재 북한에서 사용되는 북한어만을 대상으로 남북 언어 차이를 기술해야 한다.

## 2. 남북 언어 차이 기술 방향

남북 언어 차이는 체계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과서에서 이를 기술할 때는 전형적 관점, 균형적 관점, 소통적 관점의 기술이 요구된다.

---

7 홍윤표(2014: 20)에서도 북한어 연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실제의 북한 언어 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 1) 전형적 관점의 기술

남북의 언어가 발음, 어휘, 문장, 화행, 어문규범, 언어 예절 등에서 크고 작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 모든 차이를 항목별로 상세히 다룰 수는 없고 ‘태도’를 강조하는 성취기준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별로 전형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남북의 어문규범 차이를 기술할 때는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의 차이를 모두 보여 주기보다는 남북 어문규범의 차이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두음법칙과 사이시옷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균형적 관점의 기술

남북 언어 차이는 발음, 어휘, 문장, 담화 등과 같은 언어 단위 내에서, 그리고 언어 단위 간에 균형 있게 기술돼야 한다. 언어 단위 내 균형적 기술의 예로는 남북의 어휘 차이를 다룰 때 일상어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전문용어의 차이도 다루는 것이다.<sup>8</sup> 사회 통합의 필수 분야(정치, 행정, 군사, 정보통신, 경제, 의학,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교육 등)에서 쓰이는 전문용어가 달라 통일 후 이를 통합하고 서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 전문용어 차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언어 단위 간의 균형적 기술은 특정 언어 단위 중심의 기술을 지양하고 언어 단위를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교과서에서 남북 어휘 차이만을 강조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남북의 언어 차이가 어휘 차이에 한정된다는 부분적 이해를 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적 이해

---

8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을 비교했을 때, 남북의 전문어 표제어 일치율은 34.3%에 그치고 있는데, 이 수치에 따르면 10개의 단어를 말하면 3.5개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의 영역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한용운, 2013).



는 언어 차이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쳐 학습자들이 남북 언어 차이 극복 방안으로 어휘 차이 극복 방안만을 모색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언어 단위 간의 균형적 기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루어진 남북 화법 차이(또는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언어 통합 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의 의사소통 방식 차이로 인해 동서독 주민 간의 갈등과 오해가 발생(김영길 외, 2001; 최경은, 2015)하였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의 의사소통 방식도 여러 면에서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그중 일부의 차이만이 밝혀졌다. 예컨대 양수경·권순희(2007)에 따르면, 남한에서는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예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에서는 직설적인 표현에 익숙하고, 남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의례적인 말을 자주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의례적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 사람들은 잘못을 한 뒤 사과하는 데 인색하고, 칭찬을 받은 뒤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는 결국 남북한 사람들 간의 오해와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서 다루어 학습자들이 남북의 의사소통 방식 차이를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언어 단위 간의 균형적 기술은 학습량의 과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남북 언어 차이를 교과서 본문에서 한꺼번에 제시하는 방식을 피하고 단원 도입, 학습 활동, 자료 제시, 날개, 단원의 마무리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학습량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

9 학습량 과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 관련 성취기준을 지금과 같이 한 학년에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국어교육에서 균형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혁(1997)에서는 최소한 매 학년 매 학기 한 단원 정도의 남북한 언어(문화)에 대한 비교 단원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민현식(2016: 4)에서도 통일 시대를 대비한다면 북한어와 언어 통일 문제를 중학교에서 처음 다루는 것은 너무 늦고 초등학교부터 쉬운 수준으로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였다.

### 3) 소통적 관점의 기술

남북의 언어 차이 중 남북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정도가 큰 것을 우선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어휘를 예로 들자면, 남북 어휘 차이를 잘 보여 주는 남북 이형동의어를 제시할 때, 남북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정도가 큰 이형동의어를 우선적으로 교과서에 제시해야 한다. 가령, 남북 이형동의어인 ‘화장실(남)/위생실(북)’과 ‘달걀(남)/닭알(북)’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에는 의사소통 방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화장실/위생실’을 남북 이형동의어의 예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북한 사람들은 ‘화장실’을 화장을 하는 곳으로 잘못 이해<sup>10</sup>할 수 있다는 점을 학습자들이 미리 학습함으로써 향후 북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장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북 이형동의어는 상대적으로 교과서에서 자주 다루어 왔으나, 단어의 의미, 어감, 사용역, 사용 빈도 등이 다른 남북 동형이의어의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는 기존 교과서에서 제시된 이형동의어와 동형이의어의 개수를 비교해 봐도 쉽게 확인된다(강보선, 2009; 강보선, 2011 참조).

#### <이형동의어의 예>

남한어/북한어: 들르다/들리다, 수줍다/수집다, 논둑/논뚝, 색깔/색갈, 잠깐/잠간, 역겹다/역스럽다, 나지막하다/낮춤하다, 영광스럽다/영광차다, 바쁘다/바빠맞다, 칫솔/이솔, 한지/조선종이, 연고/무른고약, 가위바위보/가위주먹, 양가슴/동가슴, 영락없다/락자없다, 맷돌/망돌, 혼연/내굴쏘임, 식도/밥길, 가연성/불탈성, 수유실/젓먹임칸, 냉수역/찬물미역, 녹차/푸른차, 설태/혀이끼, 도넛/가락지빵, 투피스/나뉘옷, 커튼/창문보, 로터리/도는네거리, 샤워실/물맞이칸, 커튼/주름막, 대중가요/군중가요, 모닥불/우등불, 부추/부루, 애처롭다/아츠럽다, 거위/게사니, 곧/인차, 그룹/그루빠, 트랙터/뜨락또르, 단짜/딱친구, 인물화/사람그림, 한복/조선옷, 가정집/살림집, 목도리/목수건, 접영/나비헤엄, 뽕틀/조마, 말끔하다/말강스럽다, 국가대표팀/국가종합팀, 해

10 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정착 초기에 상점에서 ‘화장실’을 보고 여자들이 물건을 사러 나왔다가 화장이 지워지면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을 고친다고 오해하였다(김현식, 2007: 354).

독제/독풀이약, 위통/가슴쓰리기, 반죽음/얼죽음, 진정제/가라앉힘약, 외래어/들어온말, 보조개/오목샘, 치약/이닢이약, 달걀/닭알, 판매대/매대, 거실/살림방, 내구성/오래견딤성, 고누/꼬니, 돌풍/갑작바람, 도둑고양이/도적고양이, 시럽/단물, 서비스/봉사시간, 자유투/벌넣기, 볼펜/원주필, 노크/손기척, 스웨터/세타, 잼/과일단졸임, 펜싱/격검, 액세서리/치레거리, 피망/사자고추, 미터/메터, 컵/고뿌, 라디오/라지오, 도시락/곽밥, 곡예/교예, 볶음밥/기름밥, 습새/꼭새, 찌개/냄비탕, 헝가리/마자르, 하마/물말, 마이너스/미누스, 세탁소/빨래집 등

#### <동형이의어의 예>

궁전, 귀부인, 극성스럽다, 긴장하다, 동무, 동지, 맹랑하다, 바쁘다, 빨치산, 소행, 세포, 시시하다, 아가씨, 아저씨, 예술, 인민, 일없다, 접대원, 평화주의 등

교과서에서 남북 어휘 차이를 이형동의어로만 보여 주는 것은 동형이의어가 이형동의어에 비해 의사소통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동서독 의사소통 갈등의 원인 중 하나도 ‘화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의미적인 차이’, 즉 단어의 어감 차이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최경은, 2015 참조). 남북 동형이의어는 형태가 동일하여 남북한 사람들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그 차이를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교과서에서 동형이의어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동형이의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 IV. 통일 과정에서 남북 언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

통일 과정에서 남북 언어의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의사소통의 문제, 남북한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 표준 한국어의 설정 문제가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언어 차이로 인해 발생

하는 어려움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 1. 의사소통의 문제

남북의 언어 차이는 남북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 동일한 의미를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말하거나 표기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마련이다. 특히 행정, 의료, 법률, 군사 등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공적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남북 언어의 차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자라나는 통일 세대를 교육하는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통일 세대가 하나의 공통된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남북의 교과 전문용어가 일치해야 하는데, 지금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학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실제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에서 배운 것과 남한의 교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 학습 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학업 부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한만길 외, 1999; 김영란, 2013 참조).

또한 남북 언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통일 후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직장에서 언어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신명선 외, 2012). 직장 내에서 남북 언어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과 해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남북 언어 차이로 인해 공적 의사소통, 학교에서의 의사소통, 직장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그에 따른 문제 해결 비용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 2. 남북한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

남북 언어 차이는 의사소통의 방해에 그치지 않고 남북한 사람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남북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향 외(2015)에는 개성공단에서 남한 직원이 북한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언어 차이로 인해 발생한 오해와 갈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북측 근로자에게 무심코 “야~, 이 똥강아지야!”라고 불렀다가 그 쪽에서 심한 욕으로 받아들여 추방을 당한 거죠. 말뜻에 대한 상호 간의 오해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초기에 적지 않았습니다.(p94)

<사례2> 북측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 사실 많이 순진하고 순박해요. ... 그러나 가끔은 당돌하고 공격적인 말투를 써서 우리를 놀라게도 합니다.(p153)

<사례3> 처음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하거나 하면 “일 없습네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괜찮다’는 뜻인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아니야. 지금 일 있는 거야! 일 있다니까!”라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6~7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죠.(p161)

<사례4> 처음에는 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무서웠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 말은 남녀 사이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라면서 의아해하더군요.(p161)

<사례5> 누군가 김일성을 ‘그 양반’이라고 호칭했다가 추방당할 뻔했죠. 여기서서 그 말이 낮춤말이 아니지만 북측 사람들은 엄청난 모독으로 여기는 거죠.(p204)

남북한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와 차이를 보이는 상대방의 언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이 또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즉 남한 사람들이 북한어를 희화화하거나 낮잡아 보는 경우, 북한 사람이 남한어를 순수하지 못한 말로 간주하는 경우에도 남북한 사람들 간 갈등이 생기게 된다.<sup>11</sup> 이를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 ㄱ. <남/북> 분유/가루젓, 도넛/가락지빵, 간호사/간호원, 치매/로망, 장애인/병신 등
- ㄴ. <남/북> 원피스/달린옷, 노크/손기척, 코너킥/모서리차기, 터널/차굴, 와이퍼/비물땀개 등

남한 사람들은 ㄱ의 ‘가루젓, 가락지빵’과 같은 말은 촌스럽고 우스운 말, ‘간호원’은 ‘간호사’의 전 용어로서 시대에 뒤떨어진 말, ‘로망, 병신’은 교양 있지 못한 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북한 사람들은 고유어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ㄴ의 ‘원피스, 노크, 코너킥, 터널, 와이퍼’처럼 굳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남한어를 향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북한어와 남한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태도는 남북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여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3. 표준 한국어 설정 문제

한국어는 한반도 내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재외 동포, KSL/KFL 학습자를 고려하면 사용 인구가 세계 13위에 이르는 세계 수준의 언어이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어를 모어, 제1 언어, 제2 언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

11 북한의 ‘현대 조선말 사전’에서는 ‘서울말’을 “서양말, 한자말, 일본말이 마구 들어와 섞인 잡탕말”로 풀이하였고, ‘조선말대사전(증보판)’에서는 ‘표준어’를 “넓은 사회에서 《서울의 중류계층 곧 도시소부르조아지들이 쓰던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규범화한 말》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사전 뜻풀이에서도 표준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어가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로 나누어지게 되면 한국어의 세계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민현식(2014: 29)에서도 한국어의 세계화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남북의 자모 순서, 표준 발음, 품사, 문법 용어,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컴퓨터 자판 등의 차이와 같은 남북의 언어 차이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통일 시대에는 남북한 사람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남북의 언어를 대표하는 표준 한국어가 필요하다.

표준 한국어 설정은 남북 언어 통합의 방식과 맥을 같이한다. 즉 표준 한국어를 무엇으로 설정할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남북 언어를 통합할지와 일맥상통하는 문제이다. 남북 언어 통합 시 남한어를 기준으로 통합할 것이냐, 북한어를 기준으로 통합할 것이냐, 남북한 언어를 균등하게 통합할 것이냐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례로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과정에서도 맞춤법 중 두음법칙과 사이시옷은 남북 간의 견해 차이가 커서 아직까지도 통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대상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남한어를 기준으로 한 통합이 우세하게 나타난 바 있다.<sup>12</sup> 그러나 독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서독어가 표준 독일어로 기능하는 데 큰 혼란이 없었지만<sup>13</sup> 우리나라는 흡수통일이 아닌 점진적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적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sup>14</sup>

12 남한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남한어와 북한어를 통합한다면 표준어 정책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남한어를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가 50.8%, ‘남한어와 북한어를 적절히 통합해야 한다’가 47.1%, ‘북한어를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가 2.0%로 나타나 남한 중심의 언어 통합 여론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창영 외, 2015: 197).

13 독일이 언어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독어가 표준 독일어로 기능하는 데 큰 반대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독일은 통일 후 동서독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계속 나타났는데, 헬만은 동서독 의사소통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일한 표준 독일어로서 서독의 언어 사용을 규범화하지 말고 서독어와는 “다른 존재를 인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Hellmann, 1997; 최경은, 2015: 69에서 재인용).

14 이인제(2005: 183)에서는 북한 지역에서 60년 동안 이상 익혀 온 언어 관습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통일만을 강조하여 언어 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 통합을 이루려

이처럼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의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여 표준 한국어를 설정할 것인지는 매우 난해하고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 어느 일방의 언어를 따르느냐, 남북한 언어 모두를 표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제3의 대안을 모색하느냐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북 간의 협의와 상호이해가 필요하다. 교과서에서는 학습자들이 표준 한국어 설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 언어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 V.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국가 수준의 거시적 극복 방안과 학교 수준의 미시적 극복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 수준의 극복 방안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2015 통일 관련 성취기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학교 수준의 극복 방안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1. 국가 수준의 극복 방안

그동안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극복 방안(혹은 남북한 언어 통합 방안)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어 왔다.<sup>15</sup> 대표적으로 홍종선·최호철(1999), 권재

---

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따를 것임을 우려하였고, 이찬규 외(2014: 59)에서는 남한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문제없는 표현들을 만들어 내고 공유하는 형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15 본고에서는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 방안’과 ‘남북한 언어 통합 방안’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 방안’이 사용되기도 하고, ‘남북한 언어 통합 방안’이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둘



일(2004), 차재은(2009), 민현식(2014)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찬규 외(2014)에서는 기존의 극복 방안을 종합하고 몇 가지 방안을 추가하여 언어 통합 방안을 언어적 측면, 교육적 측면, 정책적 측면으로 유형화하였다.

표 1. 남북한 언어 통합 관련 기 제안 정책(이찬규 외, 2014)

| 영역     | 정책 명                  |
|--------|-----------------------|
| 언어적 측면 | 사전편찬(국어, 방언, 전문어사전)   |
|        |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          |
|        | 공공언어 대조 및 통합 방안       |
|        | 남북한 언어 말뭉치구축          |
|        | 남북한 생활용어집 제작 및 어플 개발  |
|        | 지명과 인명 표기 대조 및 통합 방안  |
|        | 남북한 언어 자료 텍스트마이닝      |
|        | 남북한 언어 연구 논저 해제       |
| 교육적 측면 | 남한 교과서의 통일 관련 교육 내실화  |
|        | 탈북자 표준어 교육 상시화        |
|        | 남북한 통합 교과서 과목별 용어 표준화 |
| 정책적 측면 | 남북문화협정 체결             |
|        | 남북 어문 규범 통합위원회 설립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        | 국어 기본법 개정             |
|        | 언어의회 설립               |
|        | 남북 공동 번역기구 설립         |
|        | 남북언어소통상담소 설립          |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남북 언어 통합 방안은 언어적 측면, 교육적 측면, 제도적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남북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교과서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지

을 상황에 맞게 혼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금까지는 교과서에서 언어적 측면에 속하는 방안들에 치중하여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유도한 경향이 있으나, 교육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의 방안 또한 남북 언어 차이 극복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교과서에 적절히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수준의 극복 방안을 다룰 때, 통일 이전부터 추진해야 할 방안과 통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예컨대 통일 이전부터 추진해야 할 극복 방안으로는 남북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언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적응을 돕는 것, 남북한 언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 남북한 통일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극복 방안으로는 전국 주요 지역에 남북언어소통상담소를 운영하여 남북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는 것, 통일 이후 설정된 표준 한국어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학교 수준의 극복 방안

2015 통일 관련 성취기준은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가 통일 시대 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극복 방안만이 아니라 학교 수준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 극복 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를 직접 실천해 보는 과정을 통해 통일 시대의 국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재일(2015)<sup>16</sup>에서 남북 언어 통합 방안으로 가장 강조한 것이

---

16 권재일(2015)에서 제시한 5가지 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밑줄은 연구자).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인식’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 수준의 극복 방안에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게 하고, 그 방안을 수업 시간과 학교생활을 통해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sup>17</sup>

## VI. 맺음말

본고에서는 2015 통일 관련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을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현재의 남북 언어 차이’, ‘통일 과정에서 남북 언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내용에 대한 교과서 기술 방향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통일 담론은 주로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 논의될 뿐, 언어적 측면에서의 통일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의 언어 차이는 통일의 과정에서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남

---

첫째,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와 조직을 최대한 활용한다. 둘째, 언어 통합의 실질적인 방안은 거래말큰사전의 올림말 선정 기준을 따른다. 셋째, 남북한이 서로 다른 어휘에 대해 단일화를 하기 위하여 몇몇 원칙을 정하여 남한의 어휘든, 북한의 어휘든, 제3의 어휘든, 결정한다. 넷째, 남북한 어휘 통합과 어문규범 단일화는 연구 단계에 멈춰서는 안 되고 관련 협의기구에서 단일화한 어휘와 어문규범은 언어사용자들로 구성된 검증단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 후, 실제 남한과 북한에서 함께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언어사용자들이 남북한 언어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일이다.

17 통일교육원(2016: 12)에서도 통일교육의 지도 방법으로 생활 관련 소재를 통한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 유도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야 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재는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준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북의 언어적 차이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이미 여러 번 확인되었다(정경일, 2001; 문금현 외, 2006; 주라임글로브, 2013; 남북하나재단, 2014 참조). 남북한 간의 온전한 의사소통 없이는 진정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국어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통일 후 남북 언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게 된다. 북한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국어교육을 통하여 남한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좋으나 지금으로서는 남한의 국민들만이라도 북한어에 대해 잘 알아 가야 한다. 남한의 학습자들이 초등학교부터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그렇게 배운 학습자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가 된 상황에서 통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 언어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한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성취기준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교과서로 잘 구현되고, 이를 통해 통일 시대의 국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와 관심이 커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강보선(2009), 「국어교육에서의 북한 어휘 교육 연구」, 『국어교육연구』 45, 국어교육학회, 1-34.
- 강보선(2011),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어휘의 비판적 고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2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215-240.
- 강보선(2013),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 및 선정 방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7, 국어교육학회, 125-152.
-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 권재일(2004), 「우리말의 미래와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우리말글』 31, 우리말글학회, 1-27.
- 권재일(2014),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권재일(2015), 「남북한 언어문화의 현실과 통일 방안」,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국립국어원·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1-28.
- 김민수(2002),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국학자료원.
- 김영길 외(2001), 「독일 통일 이후의 언어 통합 과정 연구」, 『독일어문학』 15, 한국독일어문학회, 319-362.
- 김영란(2013), 「탈북 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도 분석 —2011년 초6, 중3, 고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6, 한국국어교육학회, 197-227.
- 김진향 외(2015), 『개성공단 사람들』, 내일을여는책.
- 김창영 외(2015),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김현식(2007),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 김영사.
- 남북하나재단(2014),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남북하나재단.
- 문금현 외(2006),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민현식(2014), 「통일 시대 남북 언어 통합의 전망과 과제」, 『2014년 남북 언어 소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국립국어원.
- 민현식(2016), 「국어교육의 철학과 정책」, 『국어교육학회 제61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국어교육학회.
- 박갑수(2002), 「남북한의 언어 차이와 그 통일 정책」, 『남북언어 동질성 회복

- 을 위한 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원.
- 서혁(1997), 「통일 국어교육의 방향과 교수·학습 방법」, 『함께여는 국어교육』 1997 여름호, 전국국어교사모임.
- 신명선 외(2012),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박이정.
- 양수경·권순희(2007),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459-483.
- 이대성 외(2013),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이인제(2005), 「통일 한국의 국어교육과 교육과정 통합의 방향」, 『국어교육』 117, 한국어교육학회, 177-232.
- 이찬규 외(2014), 『남북 언어통합 종합계획 수립』, 국립국어원.
- 이해영(2000),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푸른숲.
- 정경일(2001), 『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 조오현 외(2002), 『남북한 언어의 이해』, 역락.
- (주)라임글로브(2013),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통일부.
- 차재은(2009),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연구의 현황」, 한국사회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 자료집.
- 최경은(2015), 「통일 독일의 언어 통합」,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국립국어원·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53-73.
- 통일교육원(2016), 2016 통일교육 지침서, 통일부 통일교육원.
- 한만길 외(1999),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용운(2013), 「남북 사전의 표제어 차이 —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조선말대사전》(2006, 증보판)의 표제어를 중심으로」, 국립국어원 주최 남북 언어통합(언어접촉과 언어변이) 학술회의 논문집.
- 홍윤표(2014), 「통일 시대를 위한 북한어 연구 방향」, 『2014 한국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어문학회, 7-44.
- 홍종선·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Stevenson, P. (2002). *Language and German Disunity*. Oxford University Press.

## 초록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일 관련 문법 성취기준 내용 분석 및 교과서 기술 방향

강보선

본고에서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성취기준의 내용을 성취기준 해설에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내용의 교과서 기술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서는 ‘통일 시대의 국어’의 범위와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국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교과서에서 강조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현재의 남북 언어 차이’에서는 남북의 언어 차이가 현재를 기준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남북 언어의 차이를 다룰 때는 전형적 관점, 균형적 관점, 소통적 관점에서 기술해야 함을 밝혔다. ‘통일 과정에서 남북 언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에서는 ‘의사소통의 문제’, ‘남북한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 ‘표준 한국어 설정 문제’ 등이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끝으로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서는 ‘국가 수준의 극복 방안’과 ‘학교 수준의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핵심어** 통일 시대, 통일 시대의 국어, 남북 언어, 남북 언어 차이, 극복 방안

## Abstract

# On the Direction of Textbook Description and the Contents Analysis of Grammar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Unification in 2015 Revised Curriculum

Kang Bosun

This study researches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Have a Attention to Korean Language in the Unification Era” by dividing into 4 sections. The first section, “the reason why we must attend to Korean language in the unification era” discuss the range of “the Korean language issue of the unification era” and emphasizes the key role of Korean language in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of two Koreas. The next section of “current language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uggests that the differences in language be described in the current status and dealing with them require three perspectives, such as typical, balanced and communicative perspectives. “The difficulties in unification that may occur from language differences” investigates difficulties due to various reasons, including “th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problem of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and “settlement of the Korean language representing the unification era.” The final section, “the solutions to overcome the language differences between two Koreas” emphasizes ‘overcoming solutions at the national level’ and ‘overcoming solutions at the school level’

**KEYWORDS** Unification era, Korean Language in the Unification Era, Korean language in South and North Korea, language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olutions to overcome the differences